

언약을 행하는 자 욥 1:1-12

모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모세만 아니라 요셉이 가는 길도 그렇다. 노예가 총리가 되었으니 더 이상 설명 필요 없다. 다윗도 다니엘도 다 그랬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신다. 언약 때문이다.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때문이다. 그 소원에 필요하면 홍해를 가르다. 지구를 멈추신다. 놀라운 일이다. 거꾸로 돌리기도 한다. 하나님의 소원에 비하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소원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으면 절대 안된다. 어느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전부 박살난다. 그 때 가서 깨달으면 늦는다. 후회하게 된다.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답을 주셨다. 그리고 그대로 하신다. 너는 속지 말라,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이다. 능히 할수 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이 약속 잡고 가는 것이다. 욥을 통해서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오늘 동시대 인물 세사람을 볼 것인데, 이들에게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들어오는 날이 되기 바란다. 하나님이 언약을 알게 하신 후에 응답을 알게 하셨다. 응답 없이 살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였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 누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현장에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때 하늘 군대를 파송할 것이다.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예비하신 문이 열릴 것이고 아무도 방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리고 인생은 기도대로 되는 것이다. 항상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받을 것에 늘 생각에 잡혀 있다. 그래서 불안하다. 와야 하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것을 뛰어 넘는 방법이 있다. 예전에 받았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 때도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하실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있다. 받을 응답을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언약을 알고 있다. 옛날에는 그 안에 있으면서도 정리가 안 되었다. 이미 내 안에 와 있는데 몰랐었다. 야곱이 그래서 당한 것이다. 형에게 살 게 없다. 이미 와 있는데. 삶 전체가 기도가 되면 너무 좋을 것이다. 24시이다. 상상도 못할 응답이 올 것이다. 그것이 25이다. 누가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겠는가? 누가 여리고 성이 저절로 무너질 줄 알았겠느냐? 우리는 죽어도 남미 끝까지인데, 누가 우리가 남미 끝까지 갈 줄 알았냐는 것이다. 교회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다. 언약이 있냐는 것이다. 그 언약이 하나님이 말씀한 언약과 같은 것이냐? 그러면 환경과 조건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교회의 크기도 환경중의 하나이다. 작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다. 언약을 잡았냐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가슴에 내 소원이 있냐는 것이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냥 언약 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사는 것이다. 될지 안될지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믿고 가는 것이다.

1. 언약을 행하는 자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의 시작이다. 지난 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 전에 욥을 두배로 축복하기로 정했다. 그 진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자기도 생각해 볼 것이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생각이나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상한 자리에 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냐? 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170여가지를 물었는데, 하나도 대답할수 없는 창조주적 질문을 했다. 그 때 깨닫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이 두배의 축복을 주셨다. 오늘 본문은 그 출발이다. 출발이 어떻게 했냐면 사단을 불렀다. 그리고 어디 갔다 왔냐니까 세상 돌아다닌다 왔다는 것이다. 욥을 봤냐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 하셨다. 사단은 항상 육신적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그렇지 깨버리면 대들것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사단에게 맡긴다. 그러나 생명은 손대지 말라 하였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은 손끝 하나도 못 움직이신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사단이지만, 영적 문제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그 대로 하였다. 그런데 욥이 놀라운 고백을 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가지고 왔다. 전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다. 그랬는데도 또 고난이 왔다. 또 사단이 말하기를 그의 몸을 치면 하나님께 대들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고난을 줬다. 욥이 굉장한 고난가운데 들어갔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동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극명한 차이가 생겼냐를 보겠다.

언약을 행한자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 살아야 한다. 내 인생을 살려는 것은 종교이다. 그리고 실패하고 반드시 사단에게 당한다. 어느날. 믿는 사람이 이런 사상으로 계속 살면 믿기는 믿는데 인생 진도 잘 안 나간다.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계시다. 만일 언약으로 살면 절대 주권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반드시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신다. 언약 중심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생 중에 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빠짐없이 중요하게 쓰임을 받는다. 증인되어 사람을 살린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언약 잡은 자는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어 있다. 항상 그렇다.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사는 자는 주역이 되게 되어 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따라간다. 언약을 잡은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정복하게 하신다. 이 언약으로 사는 것이 언약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언약인 것을 누구나 다 안다. 원죄의 저주를 해결하였다. 우리에게 저주가 없다. 누리는 자는 저주를 깨게 되어 있다. 틀림이 없기 때문에 언약을 잡고 여기에 생명 걸면 반드시 정복한다. 사단의 머리를 깨는 유일한 답이다. 우리는 물 떠난 물고기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만나 영원히 누리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당연히 먼저 믿어야 한다. 행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전에는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육신적인 것도 있었다. 이제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 하나도 필요 없다.

아브라함과 욥과 롯은 동시대 사람이었다. 욥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섰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아무도 그 믿음을 따라갈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되었지만 롯은 육신적으로 완전히 망했다. 후손까지 망했다면 완전히 망한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욥의 경우도 나중에 두배의 축복으로 회복이 되었다. 마지막에 가면 욥의 딸 세명이 있었는데. 이 세명이 전국적으로 일등 미녀이다. 후손의 축복이라는 것이다. 롯은 다 망해버렸다. 후손도. 그리고 두배의 축복으로 회복되었을 때 유명한 사람이고 고난이었기 때문에 많

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했다. 그 때 옴은 있는 것으로 대접하고 왔다 갔다 해도 그것만으로도 시대적인 증인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 했다. 계속적으로 언약의 삶을 살고 계속 증인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원에 있어서도 세 사람에게는 굉장한 차이가 났다.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이 두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동안에 롯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수 많은 불신자, 우상숭배자, 악을 행하는 더러운 인간들과 한꺼번에 다 날려버렸다. 지금 까지 모아뒀던 재산 전부 유황불에 다 날라갔다. 물론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 몸도 다치지 않았다. 육신의 생명은 건졌다는 것이다.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지만 여하튼 구원 받았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 그 상징이다. 그런데 롯과 그 가문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없다. 이 후에는 전부 사라진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한다.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잡아야 한다. 다시 한번 심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이것이 언약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안한다. 알면서. 그러면 증거를 못 받는 것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행했는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결론은 언약을 행하지 않아서이다. 언약이 답인데, 이 답을 행하지 않으니 인생에 답이 안 나타나는 것이다. 신자는 이런 원리는 못 벗어난다. 불신자는 이런 개념에서 지 맘대로 한다. 우리는 지맘대로 안된다. 나가면 하나님이 때린다. 들어오라고. 절대 주권적 간섭이다. 답을 행하지 않으니 인생에 답이 나타날 리가 없다. 믿기만 하고 현장에 적용을 안한 것이다. 그냥 답만 쌓아도 괜찮았을 것이다. 롯에게는 영원히 구원 받는 답은 은혜로 주어져있었다. 베드로전서 2:7절에 의인 롯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은 약속대로 일어났다. 그 증거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죽지 않고 천사와 같이 나왔다는 것이다. 영접이 확실히 된 사람은 이 응답으로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옴은 이것이 너무나 많아져서 자기 의가 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야기해도 나는 법에 기록된 그대로 했다고 주장했다. 너무 잘하니까 자기 의가 되고 교만이 되는 것을 몰랐다. 잘한 것 자체는 너무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냐? 이정되 되니 선을 넘은 것이다. 항상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언약은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안된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그것이 정상이다. 언약을 잡았으니 하나님이 필요없다는 것, 이런 것은 영적으로 어릴때에는 한번씩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옴이 이런 반면, 롯에게는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한번도 없다. 물론 기록만 없을수도 있다. 여하튼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포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기록이 없다. 언약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 언약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행해야 한다. 그래야 사단과 전쟁이 된다. 사단이 무너져야 된다. 승리하고 정복해야 된다.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언약으로 잡고, 옛날처럼 단을 쌓고 그래서 안된다. 미국 법에도 안되지만 영적인 법에도 안된다.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왜 옛날로 돌아가냐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는 언약을 지키는 것이 단을 쌓고 희생제사 드리는 것이다. 이것 행한 아브라함과 옴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두배의 축복을 받았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 수많은 후손을 낳았다. 그리스도도 그의 족보를 통해서 오셨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롯의 가족은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족보에서 사라진다. 신 23:3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롯이 자기 두 딸을 통해 낳은 민족이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 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유가 뭘지는 모르지만. 옴이 이렇게 되어 버렸다. 이것이 그러면 전부 언약 때문이라는 말이나는 것이다. 단 쌓고 그거 하나 안했다고 이게 다 왔냐는 것이냐 라고 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왜 언약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야 하는가? 언약이 답이기 때문이다. 다르게 답이 있느냐? 이 약속의 피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저주로부터 구원이다. 이것 말고 길이 없다. 그러면 이 언약으로 저주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것이다. 롯이 자기가 죽고 싶어 죽은것인가? 심판당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재산 다 날렸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옴은 비슷한 인간인데, 두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롯은 하나님의 심판에 재산 다 날라갔다. 이것을 언약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석하는 것이 괜찮은가? 틀렸나?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나? 말할 것이 있나? 세상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소리 하면 안된다. 이게 답이니까. 이것 말고는 롯과 같은 저주에서 나오는 길이 없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이다. 믿는 집안이다. 다 알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불만중에도 언약을 행했으나 롯은 안했다. 옴은 너무 들어가서 오버를 한 것이다. 그러든지 말든지 옴은 한 사람이다. 그러니 옴이 잘못된 것 고쳐서 두배의 축복을 주신 것이다. 무슨 결론인가? 이러든 저러든 관계없고 답은 이것이다. 우리의 언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나와 하는 것이다. 롯이 언약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고백하고 잡고 하는 작업을 계속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 영적인 눈과 힘이 열렸을 것이다. 눈이 열리면 힘이 나기 때문이다. 눈 열리는 만큼 힘이 난다. 눈 열리는 것 만큼 기도되고 응답된다. 어디서 이 눈을 여는가? 그 언약 안에, 약속의 피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답이 되었을 것이다. 옴 자신에게. 그러면 소돔 고모라, 악한 동네에 이 답이 필요한 사람이 짝 깔려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나처럼 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답이 났으니까. 그러면 롯은 소돔 고모라를 건진 역사적인 인물이 될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이다. 전도를 할 영적인 힘이 없었다.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지역을 살리고 영웅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지역과 함께 죽어 버렸다. 싹 다 망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된다. 이 언약을 네 삶에서 행해야 한다. 그냥 믿고만 있지 말고 행해보라는 것이다. 이 영적 작업을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다. 영적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눈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사람을 살린다. 응답 받고 사람 살리고 감사하고 더 큰 문이, 더 큰 눈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더 큰 행함이 나올 것이다. 우리의 언약 누리는 기도가 24에 도달하면 세계를 경영할 것이다. 아주 시대적인 증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답으로 잡고, 그것으로 현장의 삶 속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자세이다. 다시 한번 이 언약이 마음에 깊이 심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란다. 이 각인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진 사람을 세계의 역사가 따라간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이것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따라간다.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 당신의 언약이고 이것을 이 땅에 행하기 원하시는 소원이기 때문이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바란다.